

현대차그룹, 부품수출 해외로드쇼 개최

이탈리아 피아트 방문, 국산 자동차 부품 전시회 가져

현대차그룹이 부품 협력사들의 수출 확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중견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탈리아 토리노시에 위치한 피아트사를 방문해, 현지 자동차 부품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부품 협력사의 기술력을 알리는 ‘부품 해외로드쇼-피아트 테크 페어(Fiat Tech Fair)’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마련한 이번 ‘부품 해외로드쇼’는 21일(현지시간), 피아트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 이탈리아 토리노의 ‘미라피오리 모터빌리지(Mirafiori Motor Village)’에서 실시되었으며, 국내 우수 부품 협력사의 부품 전시회 및 관련 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부품 해외로드쇼-피아트 테크 페어’는 현대모비스가 행사를 주관

하며 국내 부품 협력사로는 남양공업, 한국단자, 인지콘트롤스, MC넥스, 유라코퍼레이션, 센트럴, 명화공업, 유진정밀, 광진상공, 서한산업, KD 등 11개사 연구소, 해외영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피아트社에서는 부품 구매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우수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참관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11개 부품 협력사에서 생산하는 170여 가지 자동차 부품이 전시되었으며, 현대모비스도 70여 개 자동차 부품들을 전시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피아트사 관계자들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우수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지아니 코다(Gianni Coda) 피아트그룹 구매총괄 사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기

아차를 통해 품질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국 자동차 부품사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부품 협력사들의 수출 수요처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부품 수출 해외로드쇼’를 개최해왔으며, 이 결과 동양 피스톤 등 로드쇼 참여 부품 협력사들이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해외 우수 자동차 업체로부터 7억6천만 달러 상당의 부품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부품 협력사들이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며 “경쟁 관계에 있는 세계 우수 자동차업체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달로 다가온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자동차 부품 분야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피아트 테크 페어를 마련했으며, 하반기에도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부품해의 로드쇼를 추진해 국내 부품 협력사들의 해외 완성차 메이커로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부품 협력사들과 공동개발한 자동차 기술들과 부품들을 현대·기아차에 독점 공급이 아닌 해외 완성차 메이커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부품 로드쇼 등을 통해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과 부품 협력사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품 협력사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감 높은 교통안전 수칙을 공유함으로써 참석 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번 교육 연수 내용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안전한 길, 안전한 어린이” 홈페이지(www.saferoad-safekids.com)에 공유, 다른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연구소 연구원 및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초빙,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분석, 초등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및 예방을 위한 교사 역할에 대한 강의와 토론 등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10가지 대표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체계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 검색 및 교육 노하우 등 현

이 뒤편에 남아가게 함으로써 운전 시야를 확보해 주는 제품이다. 예기치 못한 비 오는 날에도 분사하기만 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레인 OK 엑스트림은 불소성분을 함유, 한 번의 사용으로도 6개월 이상 발수코팅 효과가 유지되는 획기적인 글래스케어 아이템이다. 깨끗한 차 유리면에 레인 OK 엑스트림을 골고루 발라주면 비를 때 마다 발수 효과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소원의 글래스케어 3종은 기존의 글래스케어 제품을 리뉴얼하여 성분과 용량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이다.

가격 : 레인 OK 스피드 1만원/레인 OK 엑스트림 1만 3천 8백원/레인 OK 클린 8천원

르노삼성차, 교통안전 교육 연수 진행

부산시 교육청과 공동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실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 이사: 장마리 위트피제)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임혜경)과 공동으로

〈2011학년도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 연수〉를 지난 16일 실시했다.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 250명

불스원 신제품 글래스케어 3종 출시

폭우 속에서도 선명한 시야 확보 안전운행



올 장마는 어느 때보다 길고 강하게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소식에

다. 다른 해보다 10일 이상 일찍 찾아올 예정인 장마는 한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성비가 자주 내려 예년보다 강우량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불스원은 장마가 쏟아지는 기간 동안,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글래스케어 3종을 출시한다. 불스원의 신제품 글래스케어는 자동차의 유리면을 발수코팅 처리를 하여 시속 60km/h 이상의 고속 주행 시에도 빗물이 맺히지 않고 날아가게 해준다. 따라서 운전자는 폭우가 쏟아지

는 날에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불스원의 글래스케어 3종은 레인 OK 스피드, 레인 OK 엑스트림, 레인 OK 클린으로 구성된다.

레인 OK 스피드는 비 오는 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차체의 앞 유리에 뿌리기만 하면 된다.

불스원의 레인 OK 스피드를 자동차 외부 유리면에 분사하면 특수 코팅막이 3초만에 형성, 유리 표면에 퍼져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등골게 만들어주어 빗방울

혼다코리아, 아메리칸 VT 1300시리즈

구매고객 대상 10% 할인 혜택 지원



혼다코리아(www.hondakorea.co.kr, 대표이사 정우영)는 최근 모터사이클 판매실적 호조에 대한 감사로 ‘Honda 아메리칸 VT1300시리즈 한정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7월 31일까지 VT 1300시리즈(VT1300CX, VT1300CS, VT1300CR)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창사 이래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에 혼다 모터사이클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Honda 아메리칸 VT1300시리즈 한정 판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홈페이지(www.hondakorea.co.kr)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면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125주년 기념 여름 셀렉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www.mercedes-benz.co.kr)가 ‘125주년 기념 여름 셀렉션’을 선보인다. ‘125주년 기념 여름 셀렉션’은 세 가지 자동차 - 세계 최초의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 300 SL, The new CLS-Class를 모터브로 하여 손쉬운 일상 생활 아이템을 여름 시즌을 맞아 강화,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125주년 기념 아이템으로는 메르세데스-벤츠 자동

차 키 모양으로 된 USB 키 스틱, 100% 물론 소재로 제작되어 팍팍수 및 시원한 촉감이 특징인 쿨론 테일러드 티셔츠, 그 외 휴대용 접이 우산, 폴로셔츠, 실버 플레이트 키링, 마그넷 세트, 야구모자, 쇼퍼백 등이 있다. 구매 관련 문의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컬렉션 홈페이지(02-3673-2216)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및 공식 서비스센터로 하면 된다.

무덥고 비 많은 올 여름, 타이어 관리 이렇게



최근 기상청은 올 여름 날씨는 6~7월 강수량이 많고, 8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발표했다. 6월 전반은 불볕더위, 후반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도 전망한다. 또한 10여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약하면 올 여름은 무덥고, 집중호우와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올 여름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본다.

평상시 타이어 점검과 관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의 기본 조건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통상 6월부터 9월까지의 여름철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기온이 높다. 둘째 장마, 국지성 호우, 소나기 등 비가 많이 내려 젖은 도로와 마른 도로를 자주 번갈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한낮의 기온과 야간의 기온 차가 큰 여름철에는 타이어의 팽창과 수축 차가 커 타이어의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타이어의 공기는 자연적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최소 한 달에 한번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타이어 마모상태 점검 젖은 노면에서는 타이어의 접지력과 제동력이 정상인 마른 노면에서보다 떨어진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2008년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대 도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운전자 1,051명을 대상으로 타이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10대 중 6대가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운행 중이고, 10대 중 3대는 불량상태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지스톤 경영기획과 송진우 차장은 “타이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상태 확인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여름철 타이어 관리 포인트

타이어 마모 정도 확인

타이어의 마모상태는 타이어의 접지력 및 제동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마모가 되면 타이어에 상처가 나고 갈라짐이 생긴다. 이런 상태로 계속 운전하면 자동차의 제동거리와 미끄러짐이 길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빗길에서 시속 80km 이상 달리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기는데(수막현상),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는 이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 포인트 1: 타이어의 마모 정도는 타이어의 옆 부분에 있는 삼각형(▲) 표시로 확인할 수 있다. 삼각형(▲) 표시가 가리키는 위치를 살펴보면 홈 속에 돌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마모한계를 표시한다. 삼각형 표시가 마모한계(1.6mm)까지 다다랐다면 타이어 교체시기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 100원짜리 동전으로 쉽게 타이어 마모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정상 타이어는 동전을 트레드(노면과 닿는 부분)홈에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 깃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순신 장군의 깃이 보인다면 타이어 수명이 다했다고 보면 된다.

점검 포인트 2: 마모한계에 여유가 있더라도 타이어의 마모가 한쪽으로 쏠리는 편마모가 심하거나 타이어가 층을 이루면서 마모됐다면 앞뒤 좌우 타이어간 위치를 바꿔주거나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이어 공기압 확인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일 때 타이어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채로 주행하면 타이어가 쉽게 손상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타이어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타이어에서 빠져나간다.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점검 포인트 1: 장마철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타이어 표면의 배수성능을 향상시켜 수막현상에 의한 미끄러짐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점검 포인트 2: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고속주행 할 때는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수준보

다 10~20% 높아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와 도로가 닿는 면적이 넓어져 마찰열이 상승한다. 타이어가 과열될 수 있는 요인이다.

점검 포인트 3: 공기압은 자동차 운행 전 상온상태에서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가 주행하면 타이어의 마찰열에 의해 내부 공기압이 높아진다. 이때 적정 공기압보다 높다고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면 안 된다. 타이어의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압도 따라 내려간다.

타이어 제조일자 확인 오래된 타이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이어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전성 또한 낮아진다. 점검 포인트: 타이어 제조일자 보는 법

타이어 옆부분(사이드월)에는 ‘DOT 1310’의 형식으로 제조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뒤의 네 자리 숫자가 제조일자다. ‘1308’이면 뒤로부터 읽어서 2008년 13주에 생산된 제품이다.

제조 연도: 10 -> 2010년 제조 주: 13 -> 13번째 주 그의 자동차 점검 포인트 배터리 점검

여름철은 특히 배터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 에어컨과 와이퍼의 빈번한 사용으로 배터리 온도가 쉽게 올라간다.

점검 포인트 1: 배터리의 윗면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 연결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얇게 발라두면 좋다.

점검 포인트 2: 배터리는 평균 2년 후부터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오래된 배터리는 미리 교체해 운전 시 갑작스런 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와이퍼 점검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는 와이퍼의 점검도 중요하다. 갑작스런 경우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퍼는 비 올 때만 주로 사용하게 평상시 점검을 게을리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포인트 1: 유리과 접촉하는 부위인 블레이드(고무가 낡지는 않았는지, 모터의 작동, 노즐의 세정액 분출, 노즐의 분사각도, 세정액의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포인트 2: 여름철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와이퍼 작동상태를 살펴야 한다. 유리가 먼지 이물질 등으로 오염됐을 때는 세정액으로 깨끗하게 닦아준다.

점검 포인트 3: 여름철, 세정액을 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와이퍼 블레이드가 유리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블레이드의 고무가 열로 인해 찢어지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BMW 그룹 코리아, 일산 서비스센터 오픈

하루 최고 90대 정비로 고객 편의 극대화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호준)는 공식딜러인 바버리안 모터스가 일산 서비스센터를 공식 오픈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로써 BMW는 국내 수입업체 중 가장 많은 31개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게 됐다.

365일 운영되는 일산 서비스센터는 BMW와 MINI의 모든 정비를 제공하며, 대지면적 3,546㎡, 연면적 2,745㎡의 단독 건물 4층으로 되어 있어, BMW 경기도 서비스센터 중 최대 규모이다. 30대를 동시에 정비

할 수 있는 작업대를 갖추고 있으며,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총 90 여대에 달한다.

특히, 36명의 기술인력이 상주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관공 및 도장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비를 처리할 수 있는 부품실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어, 경기 북부 지역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BMW 일산 서비스센터는 친환경 건설 방식을 적용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다.

자연 채광을 높이는 전면 유리로 벽면을 디자인했으며, 초절전 냉난방 방식과 친환경 냉매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 방울 및 흡음재, LED 조명을 사용해 고효율, 저전력은 물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